

일주문

진흥원 신년대법회 법문
 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1월 28일 대한불교진흥원과 BBS불교방송이 개최하는 신년대법회에서 법사로 입재법문한다.

토요 영어법회 진행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은 1월 19일 오후 2시 동국대 대각전에서 캐나다 학자 글렌 멀린(Glenn Mullin) 법사를 초청해 토요 영어법회를 진행한다.

화계사 학술세미나 개최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1월 1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화계사지〉 발간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중국 선불교 유적지 순례 봉행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는 1월 18-22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 일대에서 불교포럼 선불교 유적지 순례를 봉행한다.

조계종 사회국장 성원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점선실에서 사회부 사회국장에 성원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사회부는 다양한 산하단체와 함께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서인만큼 열심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성원 스님은 1994년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송광사 쌍계사 해인사 직지사 선원 등에서 정진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 약천사 주지를 역임했다. 신종일 기자

사설사담단체총연합회 신년하례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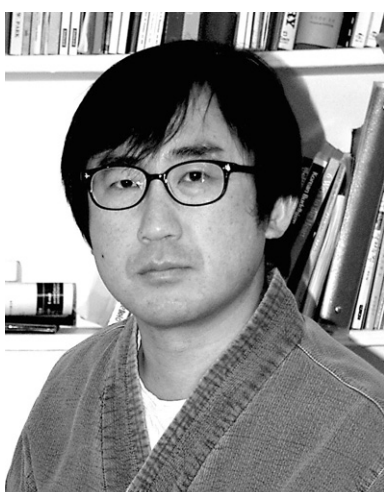


(사)전국사설사담단체총연합회(회장 무산, 이하 전사련)는 1월 8일 수송동 두산위브 1층 회의실에서 ‘계사년 신년하례 법회’를 열었다. 사무총장 대명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회장 무산 스님, 총재 각성 스님, 증명대법사 해암 스님, 성해 스님, 법월 스님을 비롯해 각 종단 회원 사부대중 80여명이 동참했다. 성해 스님과 해암 스님의 법어에 이어 회장 무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계사년의 힘찬 기운으로 한국불교의 발전을 선도하는 전사련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미주 불자들 자유롭게 소통하길”

이종권 미주불교신문 편집장

“불법(佛法)의 황무지인 미주지역에서 현지인들에게 법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미주지역 불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다. 미주불교신문사(편집장 이종권)는 1월 9일 새해를 맞아 미주한국불교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www.koreanbuddhism.us)를 개설하고 미주한국불교 발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이트 개설의 총책임을 맡은 이종권 편집장(사진)은 “이번에 개설된 ‘미주한국불교’ 사이트는 미주한국불교의 경계와 영역을 명시하고 미주지역에서 한국불교를 구성하는 각 지역 승가 단체 및 사찰, 불교단체, 영어권 수행센터 등의 각종 행사와 불사를 온라인상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미주한국불교의 교류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불자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개설 미주한국불교계 현황 한눈에 파악 소통공간부재로 美한국불교 침체

이종권 편집장은 총담과 함께 7년여 간 축적한 자료를 미주 불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미주한국불교’ 사이트를 개설하고 △미주한국불교 △미주불교신문 △The Sangha Book △Community 등 4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온라인 미주 불교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간다. ‘미주한국불교’ 카테고리는 미주한국불교계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 사찰 및 단체의 홈페이지를 모두 링크시켰다. 또한 홈페이지가 없는 사찰에는 독자적인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을 부여했다. 이 밖에 한국불교의 영역을 영어권 수행센터까지도 넓혔다. 이종권 편집장은 “한국

불교는 한국의 불교수행전통에 입각한 구분이지 언어나 민족에 의한 구분이 아니다”라며 “승산 스님이 창건한 관음선종처럼 미국 전역에 산재하는 영어권 한국불교 수행센터를 모두 발굴해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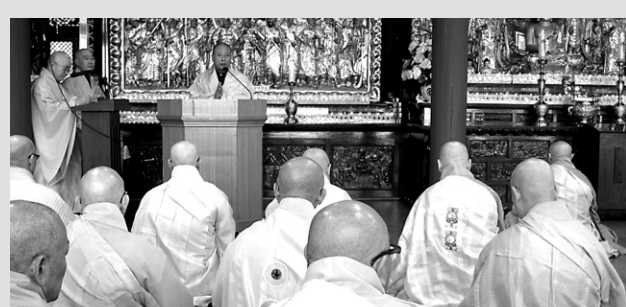
‘미주불교신문’ 카테고리에서는 미주불교뉴스·한국불교소식·출판계 소식 등으로 메뉴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인터넷 신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편집장은 “현지에서 직접 취재해 생생한 사진과 함께 미주불교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할 수 있는 기능은 미주불교신문 최대의 강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에는 많은 한국 사찰이 정착해 활동하고 있다.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보문종 등의 사찰들이 진출해 이민 생활에 지친 많은 불자들의 기도처이자 수행처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라는 적박한 여건과 소수계 이민자를 위한 종교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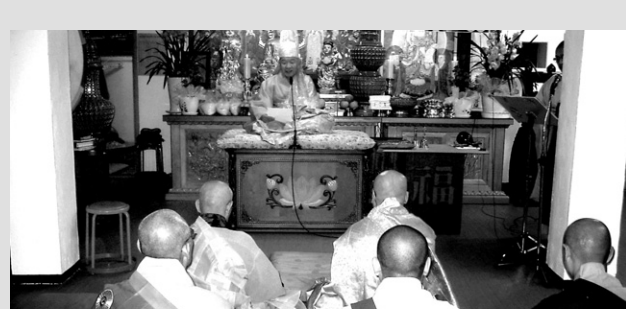
이종권 편집장은 “미주지역 한국불교가 한국에서와 같은 교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원인으로 불교인 간의 원활한 소통공간의 부재라는 점에 착안, 모든 불자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교감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을 발의하고 이 사이트를 개통하게 됐다”며 “사찰 뿐 아니라 미주지역의 포교단체들도 이 사이트에 동참해 함께 소식도 전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주한국불교 사이트: www.koreanbuddhism.us, 미주불교신문사: 1-718-644-0979 이너는 기자

(재)일불선교종 신년하례법회



(재)대한불교일불선교종(총무원장 경원)은 1월 8일 인천 호불사 대법당에서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총무원장 경원 스님, 원로의원 도기 스님, 제5대 총무원장 동봉 스님, 종회의장 법선 스님을 비롯해 종도 80여명이 참석했다. 종회의장 법선 스님의 상축, 경남총무원장 승원 스님의 발원문 낭독과 총무원장 경원 스님, 원로의원 도기 스님, 제5대 총무원장 동봉 스님의 신년사가 이어졌으며 신임 재무부장 도허 스님의 임명장이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여래불교조계종 신년하례법회



(사)여래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현산)은 1월 3일 총무원인 여래사 대법당에서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현산 스님, 종회의장 혜건 스님, 사무총장 자운 스님 등 종도 30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현산 스님은 “계사년을 종단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강원교육의 활성화, 종도 문화교실 운영, 종도확충, 청정수행 풍토조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평생교육기관으로 박물관 비전 제시”

생생문화재사업 우수상 수상한 한선학 고관화박물관장



“지역의 열악한 사립박물관들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주 명주사 고관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문화재청이 시행하는 ‘2012 생생문화재사업’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선학 고관화박물관 관장(사진)은 1월 12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생생문화재사업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민간 사립박물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생문화재사업은 문화재청이 지난 2008년도부터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문화재 활용사

박물관에서 실시한 에듀케이터 지원사업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 관장은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전시와 노인, 시민, 학생, 학부모, 군 장병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문화형 템플스테이인 ‘숲 속 관화학교’를 진행했다”며 “연 인원 2만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이번 생생문화재사업 우수상 수상에 큰 힘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고관화박물관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새해에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립박물관들은 재정적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의 발전은 향후 사립박물관들이 활성화 되는데 톨모델이 될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불교조계종 신년하례법회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해인 스님은 1월 7일 총무원 대법당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해인 스님은 “사부대중은 계율정정 수행정진해 정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하례법회에는 역경원장 해산 법종 스님, 율원장 해일 스님, 부원장 동안 도불 스님, 교육원장 원광 스님, 강원도 총무원장 광덕 스님, 경남 총무원장 지건 스님, 충북 총무원장 학산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생활속의 불법수행 ①

생활속의 불법수행은 현대불교신문 광고지면을 통해 부처님 법을 널리 홍보하는 지면입니다. 불자개인, 단체, 사찰 누구라도 소정의 정성금으로 부처님의 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광고부 02)2004-8213.4

독사굴로 들어간 두루몽수리



무쇠로 만든 연장이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고철상에 모였다가 용광로로 들어가 다시 무쇠로 재생되어 나온다. 금붙이라면 금방으로 모였다가 금 제품이 되어 다시 나온다. 그렇듯이 사람도 살아 생전의 마음 그 차원이 금이나, 무쇠나, 강통이나에 따라 더하고 덜함도 없이 나오게 된다.

사람이 불법의 도리를 모르고 죽게 되면 그 의식 그대로 눈 멀고 귀 멀어 생시에 하던 대로 거기에 걸려 한 발자국도 새삼스럽게 내딛지를 못한다. 사대는 흩어져 원점으로 돌아가고 식만 남게 되니 눈도 없고 귀도 없으며 마치 두루몽수리 풀이라. 다만 생전의 습대로 이리저리 헤매게 된다. 헤매는 중에 불 바퀴를 보면 타 죽을까봐 겁을 내고 불 바퀴를 만나면 빠져 죽을까 겁을 낸다.

그러다가 생전에 개와 같은 짓을 많이 했으면 개로, 독사짓을 많이 했으면 독사굴로 들어가 그대로 빠져 살을 빌어 태어나니 그 모습을 어찌하겠는가. 고로 살아 생전에 아귀 축생의 마음을 자주 냈으면 아귀 축생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지옥이 따로 없이 독사 몸으로 들어간 게 곧 지옥이 아니겠는가. 살아서 천당에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상에 태어날 수 없다.

그러니 불법의 도리를 외면하여 살아서나 죽어서나 두루몽수리 풀이 되지 말고 살아서 마음 공부를 하여 밝디 밝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

현천 불서회